

온두라스에서 온 사랑의 편지

2015 년 4 월

구원받은 레이나...



지난 2 월, 진희 엄마 레이나가 갑작스레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6 살 어린 남편, 막 두 돌 된 아들과 잘 살고 있던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 앞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앙심을 품고 기다리고 있다가 죽인 것이죠. 평소 권총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위험한 곳으로 이사한 지 한 달 남짓한 때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레이나를 방문해 위로하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레이나는 친정 엄마와 함께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든 상태입니다.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이 잘 자라도록 기도해주세요.

할머니&할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그 동안 미자 이모, 혜진 이모, 성덕 삼촌 등 안드레회 가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던 제 아이들이 세 달 동안 '새 생명 교회' 오 장로님 부부로부터 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막내 진희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 갑자기 잃어버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움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키도 크고, 한층 예뻐지고 있답니다. 거기다 일류 요리사 최권사님은 매일 어디서도 맛 볼 수 없는 할머니표 진수성찬을 차리고 계십니다. 사라의 21 살 생일, 진희의 10 살 생일, 부활절엔 남학생들 세 명도 초대해서 푸짐한 잔치를 해주셨지요. 참

많은 분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사리오 쓰러지다...



4월 6일 새벽 로사리오가 바닥에 넘어져 뇌혈관이 터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의료진들의 무지로 인해 밤에 수술한 환자에게 점심 식사로 국을 주어 먹게 한 후 8 번을 토해 다시 뇌혈관이 터져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속이 상합니다. 현재 2주가 지나고 있는데 한번도 의식을 잃은 적 없이 회복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3세의 노인이 두 번의 뇌수술을 이겨냈습니다. 왼쪽 뇌를 다쳤기에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 있지만 부종이 빠지면 움직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회복 기간에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길 위해,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까를로스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라의 무릎...

사라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요. 뒤로 넘어, 물구나무 서서 걷기, 옆으로 넘어 등등 체조 선수처럼 집안에서도 재주를 부립니다. 현대, 가끔씩 무릎을 굽히는 것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증상이 있어 X-ray 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휴가에 아이들과 함께 해변에서 놀다가 갑자기 넘어진 후 무릎이 붓고 잘 걷질 못하더군요. 감사하게도 오 장로님께서 수지침을 놓아 통증을 경감시키고 최권사님이 무릎 연골 수술 후 받은 약을 복용케 하고(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분이 평소에 쓰시던 지팡이와 무릎 보호대를 다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MRI 촬영을 통해 교차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운동 선수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달리기하다 뛰어내린 후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씩 찢어진 인대가 이번에 완전히 찢어져버린 것 같다고 합니다. 한달 반 동안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11월 방학 때 하기로 의사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만히 있질 못하는 우리 사라가 인내심을 가지고 수술과 회복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래 저래 환자들이 두 명이나 생겨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사람을 보내주셔서 제가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돕도록 하시며,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 오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로사리오의 빠른 회복과 사라의 무릎을 위해
2. 레이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3. NGO 등록을 위해- 아직 기아대책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지 법인으로 할지 기아대책 법인으로 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법인 등록을 해야 아동 보호국의 허가 후에 새로운 아이들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4. 영육간에 온 가족 건강하도록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 38 도, 체감 온도 43 도 입니다. 학교도 12 시 반에 끝나는 실정입니다.

온두라스에서 혜영 드림